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FTA국회비준 저지...’ 투쟁은 끝났다 말하지 마라’



한·칠레 FTA가 국회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30일에 이어 지난 8일 또 한번 본회의에 상정이 됐으나 결국 무산, 다음달 9일로 연기됐다.

지난 8일 오후 2시에 여의도 국회 앞에는 3,000여명의 농민들이 운집해, 한·칠레 FTA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사생결단으로 투쟁을 전개했다. 이날 투쟁은 여의도에서 뿐만 아니라, 광화문우체국 앞 '나락뿌리기', 국회 앞 '닭풀기' 등 다양하게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날 경찰은 농민들에게 물대포를 난사하고 중앙무대까지 침탈, 폭력을 행사해 연행자와 부상자가 속출했다. 심지어 음향시스템과 방송차량까지 고의로 파손하는 만행을 저질러, 스스로 폭력경찰임을 선언이라도 하는 듯 했다.

한편, 국회 안에서는 13번째 안건으로 한·칠레 FTA협정안을 처리하려 하자 40여명의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이 박관용 국회의장 단상을 둘러싸고 1시간 30여분 동안 의사진행을 저지하고 비준안 처리연기를 주장했다.

결국 박관용 의장은 오후 5시 43분경 “2월 9일 본회의에서는 물리적으로 저지하면 경호권을 발동하겠다”고 하고,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해야 된다.”는 단서를 달고 한 칠레 FTA비준안 처리를 연기했다.

이에 대해 한농연 서정의 회장은 “우리 농민들의 단결투쟁으로 비록 연기를 시켰지만, 아직 끝난 싸움이 아니다.”라며, “다음에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FTA를 저지시키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중앙 임직원 워크샵 개최

한농연 중앙연합회 임직원들이 신갑년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내실 있는 사업계획과 투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워크샵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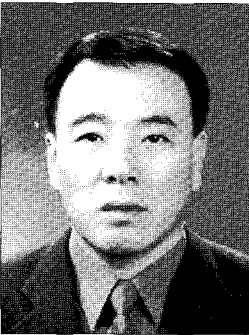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속초 농협연수원에서 2박3일로 예정된 이번 워크샵은 한·칠레 FTA를 비롯한 각국과의 FTA체결 문제, WTO DDA협상, 쌀재협상 등 계속되는 무분별한 수입개방과 협동조합개혁, 농가부채해결, 농촌복지증진 등 산적해 있는 농업·농촌현안과 조직 강화방안에 대해 2일에 걸쳐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농연 탁명구 사무총장은 “이번 워크샵은 임직원의 단합은 물론이고 내실 있는 사업운영과 투쟁을 위한 탄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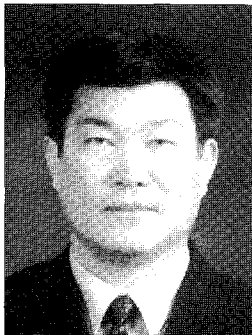
산하연합회소식

강원·충북, 새일꾼으로 새해 결의 다져



송인범

충청북도연합회장



김수만

강원도연합회장

충북도연합회와 강원도연합회가 대의원총회를 가진 후 임원선거를 통해 새일꾼을 뽑았다.

충북도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2일 9대 임원선거를 통해 충북도회장에 송인범 옥천군회장을 당선시켰다. 그러나 4명의 부회장과 3명의 감사는 후보자 부재로 인해 선출을 연기했다.

강원도연합회에서는 지난 1월 10일 10대 임원선거를 치러 김수만 감사가 회장에 당선되었으며, 부회장에 백승호(현 영월군연합회장), 박명길(현 태백시연합회장), 박창환(현 철원군연합회장), 김명호(현

삼척시연합회장), 감사에 이창근(전 고성군연합회장), 김연섭(전 정선군연합회장), 송진호(현 원주시연합회 수석부회장)를 각각 무투표로 선출했다.

송인범 신임충북도연합회회장은 “형식적인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략적 관점에서 농권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강원도연합회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김수만회장은 “금년 한해는 FTA와 DDA, 쌀재협상 등 어렵고 막중한 문제가 산적한 만큼,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농권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신임 회장 선출과 관련, 충북도연합회는 지난 16일 오후2시에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시군연합회 자매결연 우의 다져

지난 14일 용인시청에서 한농연용인시연합회(회장 이래성)가 제주 서귀포 감귤 판촉행사를 가졌다.

이날 판촉행사는 용인시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서귀포시연합회(회장 진대호)의 감귤농가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200박스의 감귤을 저렴하게 판매했다.

이래성 용인시연합회 회장은 “오렌지 수입으로 우리 감귤농가가 더없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럴 때 일수록 우리 회원들이 서로 도와가면 좋지 않겠냐”며 “다른 시군에서도 자매결연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연합회는 지난해 10월 30일에는 서귀포시를 방문해 ‘용인 백옥쌀’ 15톤을 서귀포시 회원들과 공동 판매하는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그 밖의 농업계 소식

농민운동가 故권종대 의장 별세

농민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평생을 바쳐 헌신한 故권종대 선생이 지난 4일 67세의 일기로 타계, 6일 영결식이 치러졌다.

이날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진 영결식에서는 한농연 서정의 회장, 진관스님,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의장, 전국연합 노수희 의장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 동지들이 참석해 애도를 표했다.

특히, 진관스님은 ‘농민운동가 권종대 선생 민족 영전에’라는 추모시를 통해 “우리는 선생을 이 국토 위에서 조국이 하나 되는 그 날까지 절대로 보낼 수 없다”, “그러니 가시다가 부디 우리를 잊지 말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고인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더했다.

故권종대 선생은 70년대부터 농민운동을 시작해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주주의전국연합 초대의장을 역임하고 농민과 민중민주화 운동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왔다.

한편, 장례식은 같은 날 밤 10시에 발인을 하고 경북영덕에서 치러졌다.

전농, 대의원대회 개최

신임의장에 문경식의장 선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지난 15일 오후1시 덕성여대 학생회관에서 10기 1차 정기대의원대회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농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지난해 사업보고와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새롭게 전농을 이끌어갈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새지도부는 10기 지도부로 대의원대회 참가자들의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문경식 신임의장(전 전농부의장)을 필두로 강기갑 부의장(전 전농경남도연맹 의장) 서정길 부의장(전 전농부의장) 박민용 사무총장 박응두 정책위원장이 선출됐다.

반세계화 운동가 印뽀바이 집결

비아캄파시나 회의도 개최돼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에서 WTO세계화에 저항해 강력한 연대투쟁을 벌였던 반세계화운동가들이 세계사회포럼(WSF)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 뽀바이에 속속 모여들었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8박9일 동안 개최된 ‘세계사회포럼’은 올해가 네 번째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 맞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기 위해 결성된 행사이다.

이번 포럼은 제국주의적 세계화 가부장제 군사주의와 평화 종교적 종파주의와 근본주의 카스트와 인종 차별주의 등을 주요의제로 채택,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전세계 민중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부터는 국제적인 농민조직인 비아캄파시나 회의가 개최돼, 한국에서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윤금순회장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했다.

윤회장은 “신자유주의 WTO의 무차별적인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연대전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기에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경찰폭력은 무죄, 농민은 유죄! 전국농민대회, FTA저지투쟁 구속자 올분

‘폭력경찰이 휘두른 방패는 죄가 없고, 농민에게만 죄를 묻는 세상이 원통하다.’

지난해 11월 19일 전국농민대회와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 투쟁을 가열 차게 벌이다 구속 수감된 농민들이 올분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구속 기소된 농민들은 총8명으로 그중 6명은 석방이 됐으나, 2명은 아직까지 구속 수감돼 있다.

구속 수감된 농민은 변해동(홍천, 1월8일 FTA저지투쟁, 영등포구치소) 송창훈(고흥, FTA저지투쟁, 영등포구치소), 총 2명이다.

한농연 홍천군연합회 전직회장이었던 변해동씨는 “연행과정에서 경찰들에 폭행을 당해 온몸이 성한 곳이 없다”고 하고, “경찰은 때리지도 않았는데 전치3주의 진단서를 끊어와 폭력협의를 씌우고 있다.”며 어이없어 했다.

이와 관련 한농연 서정의 회장은 “구속된 동지들을 석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나라의 근간인 우리농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2월 9일에는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한·칠레 FTA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석방된 농민은 이정범, 문종필(각 나주.해남, 12월24일 징역8월/벌금50만원/집유2년 선고) 한기정(진주, 1월13일 징역8월/벌금50만원/집유2년 선고) 한동희(공주, 12월24일 징역1년/벌금20만원/집유2년 선고) 전홍남(공주, 1월15일 보석석방) 이상 11.19대회 구속자, 신재선(남원, 1월7일 구속적부심 결과 석방) 12월29일 FTA저지 투쟁 구속자, 이상 총 6명이다.



이경해 열사 흉상 세워 열사 뜻 기려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큰바위 얼굴 조각공원’에 이경해 열사의 흉상이 제작돼 열사의 뜻을 기렸다.

이경해 열사의 흉상은 음성 현대병원 정근희 이사장이 사재를 털어 제작한 것으로, 열사가 산화한 다음날부터 제작에 착수, 길이 330m의 화강암으로 4개월간 제작됐다.

정이사장은 “이경해 열사는 우리 농민들의 아버지이자, 세계농민들의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하고, “안중근 의사가 그러하듯이 우리 후손들이 이경해 열사의 숭고한 뜻을 기려야 한다.”며 열사의 주검을 높이 샀다. **한농연**